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⑩

翼眞記云 定慧二字 乃三學之分稱
익진기운 정혜이자 내삼학지분칭
具云戒定慧 戒以防非止惡爲義
구운계정혜 계이방비지악위의
免墮三途 定以稱理攝散爲義
면타삼도 정이칭리섭산위의
能超六欲 慧以擇法觀空爲義
능초육욕 혜이택법관공위의
妙出生死 無漏聖人 因中修行
묘출생사 무루성인 인중수행
皆須學此 又此三學 有隨相稱性之別
개수학차 우차삼학 유수상칭성지별
隨相如上說 稱性者 理本無我戒也
수사여상설 칭성자 이본무아계자
理本無亂定也 理本無迷慧也
이본무란정야 이본무미혜야
但悟此理 卽眞三學耳
단오차리 즉진삼학이

〈익진기〉에 보면 '선정과 지혜라는 두 말은 바로 삼학(三學:계, 정, 혜)의 준말로서 갖추어 말하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이다. 계율은 잘못을 막고 악을 고친다는 뜻이니, 삼악도에 떨어짐을 면하게 함이요, 선정은 진리에 부합하여 산란한 마음을 수습한다는 뜻이니, 여섯 가지 욕망을 뛰어넘게 함이요, 지혜는 법으로 공(空)을 관(觀)한다는 뜻이니 이는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는 성인은 처음 수행할때 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삼학이라 한다' 하였다. 또 이 삼학은 상(相)으로 따지는 것과 성품으로 따지는 구별이 있다. 상으로 따지는 것은 위에 말한 것과 같고, 성품으로 따진다면 '진리에는 본래 '나'가 없다는 것이 계율'이고, '진리에는 본래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이 선정'이며, '진리에는 본래 미혹됨이 없다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학이다.

先德曰 吾之法門 先佛傳授
선덕왈 오지법문 선불전수
不論禪定精進 唯達佛之知見
불론선정정진 유달불지지견
此卽旦破隨相對治之名
차즉단파수상대치지명
不壞稱性三學
불괴칭성삼학
故曹溪云 心地無非自性戒
고조계운 심지무비자성계
心地無亂自性定 心地無痴自性慧
심지무란자성정 심지무치자성혜
此之是也
차지시야

또 옛 스님은 '내 법문은 과거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이지만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통달하게 할 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상(相)으로 따지는 이들의 삼학을 깨뜨린 것이지 성품으로 따지는 삼학을 부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계 스님이 '마음에 잘못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율이요,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지혜이다'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又所言禪者 有淺有深 謂外道禪
우소언선자 유천유심 위외도선
凡夫禪 二乘禪 大乘禪 最上乘禪
범부선 이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廣如禪源諸詮集所載 今之所
광여선원제전집소재 금지소
論心性本淨 煩惱本空之義
론심성본정 번뇌본공지의
是當最上乘禪 然於用功門中
시당최상승선 연어용공문중
初心之人 不無權乘對治之義
초심지인 불무권승대치지의
故此勸修
고차권수
文內 權實幷陳 不可不知也
문내 권실병진 불가부지야

또 말한 선에도 얕고 깊음이 있다. 말하자면 외도선, 범부선, 이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원제전집〉에 실려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말한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번뇌란 본래 없다'고 하는 이 이치는 바로 최상승선(가장 근기가 뛰어난 선, 즉 조사선을 뜻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차츰 공덕을 쌓아가는 수행의 문이 있어야 하겠기에 권승(權乘:근기가 얕은 이를 위해 방편으로 가르침)과 대치(對治:서로 대칭되는 것을 나타내어 가르침)의 뜻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勸修文)에는 방편과 절대의 진리를 아울러 말했으니 그렇게 알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지혜는 법으로 空을 觀하니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것

법인스님 큰 스님과의 대화

천안 각원사 주지

"우러러 뵈오니 칠십년 풍설(風雪)을 헤쳐오신 얼굴, 수련꽃 흰빛이 깊어 은은하옵니다. 보현의 옥합에 가득히 담긴 알알의 보석은 영롱하고, 문수의 발우에 넘치는 물은 맑습니다. 스님께서는 분명, 높은 하늘 날아와 앉은 푸른 솔 위의 백학(白鶴)이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이 지난 10월3일 은사인 법인스님의 고희(古稀)를 맞아 이러한 헌시(獻詩)를 올렸다. 청화스님의 표현처럼 법인스님은 청년같은 동안(童顔)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백학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26일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마무리했다는 천안 태조산에 자리한 웅장한 호국대찰 각원사 경내 경해원(鏡海院)에서 법인스님은 "중생苦와 시대고의 해결이 이 시대 수행과 포교의 중요한 논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땀 흘린만큼'이 삶의 인과법

· 1931년 경남 충무 生
· 46년 해인사에서 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마산 해인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졸업
·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 문학박사학위 취득
· 現 천안 각원사, 동경 명월사 주지
·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연구〉 〈불교입문〉 등 논 · 저서 20여권

—스님께서는 54년간 '참선하고 역경하며 포교하면서 불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이라는 신념으로 수행과 포교, 교육에 매진해 오시면서 항상 시대를 이끄는 불교가 돼야한다고 평소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도 동남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며 발전했듯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사는 한국불교 역시 새 시대에 맞는 이념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율원의 경우 전통계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대에 맞는 계율을 제정해 불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복잡한 계율을 가진 나라가 한국불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정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독일식, 미국식, 일본식 헌법이 나라와 시대마다 달리 취사선택되고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왔듯이 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칙만 잘 지킨다고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칙도 잘 지키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교는 '상구보리'와 함께 '하화중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개인적인 수행의 공덕을 사회로 회향하는 실천에 무게를 두자는 말씀이지요.

▲불교의 깨달음도 요 임금, 순 임금이 추구한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를 닦았으면, 백성을 위해 치산치수(治山治水) 해야한다는 얘깁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깨달은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던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실천 없는 깨달음은 사물을 아우르지 못하는 허무한 이념과 다를바 없어요.

스님들은 많은 중생들의 카운셀러 역할을 해야합니다. 중생들은 고해(苦海)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이 깨달음에도 있지만 중생과 부처님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불교와의 인연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스님께서 이곳 태조산에 호국통일기원 도량인 각원사를 창건한 연유도 민족苦를 해탈시키고자 한 실천의 방편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시대苦인 동족상잔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서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제가 한반도의 중심인 천안 태조산에 통일기원 대불(아미타부처님)을 모신 것도 이런 원력때문입니다. 대동강변에 대세지보살을, 영호남 중간지점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려 한 것도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마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1950년 11월, 6.25전쟁의 피난길에서 경주를 지나치다가 석굴암을 참배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비극, 국민들이 받는 이 극심한 고통, 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주시는 계시처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3국이 갈려 지금처럼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던 때, 신라는 3국을 통일했고, 김대성은 통일된 국가의 번영을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지 않았던가. 나 역시 우리나라와 고통받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힘을 키워 남북통일을 기원할 수 있는 대도량을 세워야겠다. 역시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펴야겠다."

이것이 제가 그이후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모든 힘을 다해 앞만 내다보면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전통불교교육은 물론 현대교육을 두루 경험하시고, 동국대 교수인 호진스님과 김용택 교수를 비롯해 많은 상좌들의 교육을 적극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현대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방이후 이승만 조병옥 장면 백승욱 박사 처럼 '박사'가 되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웃음). 교육은 승속을 불문하고 가장 기초적인 관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과정 없이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정립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현대인들을 교화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과정입니다.

참선도 마찬가집니다. 교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화두 염불 주력 기도가 여법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시생은 고시를 합격한 후 판 ·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가 된 후에도 육법전서를 옆에 끼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평생 교육은 수행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성한 스님네들이 경전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제자는 선교쌍수(禪敎雙修) 즉, 선과 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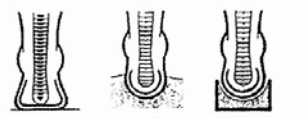
▲아니죠, 선 · 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 가운데 선 · 교를 다르게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세 곳에 마음을 전한 것(三處傳心)이 선지(禪旨)가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卍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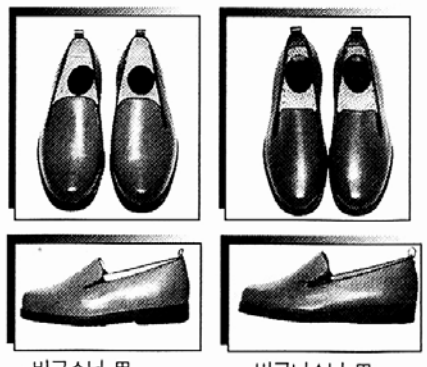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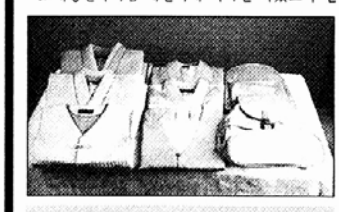
E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 여	130,000
누비 (上,下)	남 여	180,000
방한복 (上)	남 여	130,000
바랑	大 中	30,000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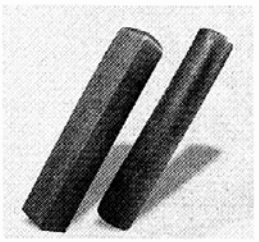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벽조목 도장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영물로 각종 패물 부적인장, 호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벽조목을 지니면 살아가는데에 야기되는 모든재앙과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며, 액운을 물리치고 운명을 길하게 하며 재물운이 강해 사업하시는 분의 성공을 지켜드립니다.

이 벽조목은 우연히도 1999년 추석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수령은 300여년이 된 벽조목이 발견된 것을 구입 제재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도장 및 공예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벽조목은 하늘이 주신 귀한 보물이므로 인연이 되시는 분께만 공급코저하오니 귀하의 출세와 부귀를 얻고 가정과 사업이 발전하여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氣 印 當

031-315-7316(팩스겸용)
016-305-7316